[홍콩] 홍콩정부, 코로나19로 어려운 외식업계에 자금 투입

홍콩 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홍콩 외식업계 및 소매시장의 막대한 타격을 입어 직원들의 해고 및 도산이 발생했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람은(2월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100억 홍콩달러를 전염병 예방 및 방지 기금 설립을 발표하였고, 여행사•음식점 및 소매점 등 각 업계에 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중 외식업계의 대규모 및 소규모 식당에게 각각 20만 홍콩달러와 8만 홍콩달러의 기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홍콩의 일식 대형 체인(Mou Mou Club, Gyu Kaku 등)의 CEO Mr. Huang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 수에 따라 최대 30억 홍콩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 케이터링 산업에 이와 같은 조치는 처음이며 실업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현 자금으로는 업계의 현금흐름의 일시적인 도움만 되며,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은 업계의 운영유지를 위한 물품조달 및 급여 등 지출에 대한 산업계의 보조금 제도가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본인의 급여를 반으로 삼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직원해고 보다는 노동력을 절반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여 직원을 해고 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였다. 현재 코로나19의 급속한 발전으로 업계의 대처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면서, 현재 수십 년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기를 희망했다.

시사점 :
홍콩 시위부터 코로나19까지 홍콩의 관광객 감소로 외식업계 등을 비롯한 각 업계에서 전면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 소매업계의 효과적인 방역 작업 등 조치와, 사회 각계의 상호 조력하여 경제타격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출　처 : 홍콩01 www.hk01.com / 일자 : 2020-02-20